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로드FC 제주 유치”

“제주, 소년체전 메달 25개 이상 획득 목표”

강영식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장 강조 18일 한라체육관 개막... 권아솔·만수르 격돌

“새로운 관광콘텐츠의 개척 차원에서 로드FC 053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제주대회장인 강영식(사진)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장이 대회 개최 나흘을 앞둔 14일, 서귀포시 소재 제주대회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로드FC 053 대회 유치를 위한 배경을 밝혔다.
강 회장은 “최근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며 제주관광 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제주 경제가 불황 상태”라며 “새로운 관광콘텐츠의 개발이 시급

한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중국 전역의 격투기 마니아 2만여명이 베이징 로드 FC 대회를 찾은 보도를 접하고 대회 유치를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18일 한라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제주 최초의 빅 이벤트로 권아솔(33·튀르키예MMA)과 만수르 바르나위와(27·프랑스), 아오르끼러(24·중국)와 제롬 르 밴너(47·프랑스) 등의 빅 매치뿐만 아니라 박석한(35·제주 탐사우쿠다), 윤태영(23·제주 탐타격), 신지승(23·제주



탐사우쿠다), 양희호(26·어·제주 탐타격) 등 제주출신 선수 4명이 프로 데뷔전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들 선수들의 간절한 꿈이 이뤄지고, 제주도 격투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기원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부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동남아 또는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며 “제주는 대한민국의 관

광1번지 다른 관광전문가 양성이 시급하고, 제주도민 또한 관광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장에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불친절과 바가지상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한다며 도민 스스로가 서비스 개선 및 자구책을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15일 제주공항에서 만수르와 아오르끼러를 위한 환영 행사가 마련된다.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는 제주에서 한중우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대사 초청 제주관광 활성화 진엔, 한중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등을 벌이고 있다.
백묵탁기자 haru@ihalla.com



언니와 맞대결 앞둔 세리나 윌리엄스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여자 프로테니스(WTA)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세리나 윌리엄스(11위·미국)가 레베카 페테르손(64위·스웨덴)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페테르손을 2-0(6-4 6-2)으로 물리친 세리나는 언니 비너스와 단식 2회전에서 맞붙는다.

제주시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 열려

오는 19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제15회 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를 개최한다.
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학교나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배운 수영 기량을 발휘하는 기회의 장이다.
이날 40개 초등학교 388명(남 251명, 여 137명), 11개 중학교 49명(남 26명, 여 23명) 등 총 51개교 437명

(남 277명, 여 160명)이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계영 5개 종목에 참가해 평소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영대회를 지속 개최해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 및 퍼센 건강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생존수영교육을 연계해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18일 시행

한국마사회 랫트런파크 제주가 오는 18일 제29회 제주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경주는 제주마(3세마) 마령 중랑(말의 나이, 성별에 따라 부담중량 차이가 다름)으로 제5경주 1000m 경주로 치러진다. 제주마 8마리가 출전해 우승상금 1억1000만원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가운데 ‘고질라’ ‘수사대’ ‘백호평정’ ‘백록여걸’의 접전이 예상된다.
랫트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과거 전적으로 경주마의 우세를 예측하기보다는 출전마와 기승기수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백묵탁기자

오라초 조재윤 1위

해군참모총장배 요트

조재윤(오라초 3) 선수가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조재윤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 옵티미스트 남자 초등저학년부 경기에서 발점 281점을 받으며, 2위 백우진(부산 주니어세일링클럽, 발점 281점)의 추격을 뿌리치며 우승했다.
조재윤은 앞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경북 포항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18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같은 종목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백묵탁기자

제주도선수단이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에서 25개(초등부 13·중학부 12)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주도체육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29개 종목(초등 17·중등 27)의 선수단 632명(본부 69·감독 코치 94·선수 469)을 파견, 메달 25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이날 도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일 대표자회의 대신 추첨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이번 소년체전에 대한 전력과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두 15개 이상의 메달을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근대3종, 레슬링, 복싱, 볼링, 수영, 씨름, 야구, 유도, 자전거, 정구, 체조, 축구, 태권도, 핸드볼 등 14개 종목의 백중세 경기에서 ‘깜짝 메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달 가능성은 23개 종목이다.
부평구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각 회원종목단체와 남은 기간 상대 팀에 대한 전력분석을 토대로 강도 높은 실전 대비 훈련을 통해 백중세에 있는 선수들이 확실한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수단은 지난해 충북 일원에서 열린 제47회 소년체전 15개 종목에서 메달 38개(금 14·은 13·동 11)를 획득하며 최고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종목별로는 수영 9개, 태권도 6개, 체조 5개, 유도 5개, 축구 2개, 씨름 2개 등 메달 10개를 기대하고 있다. 토너먼트종목에서는 유도 5개, 태권도 3개, 씨름 2개, 축구 1개, 럭비 1개, 정구 1개, 레슬링 1개, 복싱 1개 등 모

기록종목에서는 ‘효자종목’인 수영(다이빙) 7개, 체조 2개, 자전거 1개 등 메달 10개를 기대하고 있다. 토너먼트종목에서는 유도 5개, 태권도 3개, 씨름 2개, 축구 1개, 럭비 1개, 정구 1개, 레슬링 1개, 복싱 1개 등 모



제주도선수단이 14일 제13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수영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목표를 향해 신뜻하게 출발했다.

제주, 전국장애학생체전 출발 산뜻

수영 김영빈 대회 2관왕... 윤주현도 ‘금 물살’

제주도선수단이 제13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인학생체전) 첫 날, 수영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목표를 향해 신뜻하게 출발했다.
김영빈(제주사대부고 1) 선수는 14일 완산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자유형 1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물했다. 이어 남고부 배영 50m에서도 ‘금물살’을 가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관왕 달성에 성공했다. 15일 자유형 50m에 출전해 3관왕에 도전한다. 또한 윤주현(월랑초 6) 선수는 남초부 배영 50

m에서 역영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제주도선수단은 대회 첫 날 3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선전했다. 15일 육상, 배드민턴, 축구, 실내조정, 농구, e스포츠, 플로어볼, 수영, 역도, 배구 등 10개 종목에 출전,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를 펼친다.
한편 제주도선수단은 이날 제주공항에서 결단식을 갖고 향릉역을 이용해 격전지 전북에 입성했다. 전날 도착한 육상, 수영, 역도 등 종목선수들과 합류해 17개 시도 대표학생선수와 치열한 열전을 펼치고 있다. 백묵탁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한국의 밤(재) 11:50 슈퍼 11:55 2019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이 부탁해(재) 9:40 그녀의 여유만만 10:40 자녀촌 뉴스 11:00 닥터 프리즈너(재) 11:00 닥터 프리즈너(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용왕님 보우하사(재) 8:30 TV전국시대 9:30 기본 좋은 날 10:25 중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토크회	6:00 모닝와이드 1부 6:30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강남 스킨쇼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실컷 나는 오늘 11:00 에니컬러리 11:30 에니메이션 런닝맨2 11:45 네 친구 코리리	7:30 피터버스 타요 8:00 당당동 유치원 1 9:00 임아 까무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30 냉정과 나랏, 코로롱 15:45 용강한 소망차 레이 16:30 랄랄라 뿌우 16:55 두근두근 방방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19:00 피파투 안전특공대 19:50 사건브리핑-안전상황실 22:45 극한직업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킹특선 발의별 중계 13:50 다큐 공감 14:40 팔도방송 스페셜 14:50 전국노래자랑(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7:55 나의 독립 영웅	13: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15: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그녀의 여유만만(재) 17:00 파파두 2 17: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7: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2:00 12 MBC 뉴스 12:25 닥터(재) 13:35 오후 2시 뉴스 외전 신비한 자연교실2 13:55 2시 뉴스 외전 편진인협회 토크회 14:20 뉴브리핑 16:00 토크콘서트 화통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16:25 속임수다 다이제스트 16:30 침착한 주말 X 미리텔 V2 16:55 이몽(재) 17:55 여행차 바다야	12:00 SBS 12 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이낙연 총리 초청 편진인협회 토크회 14:00 뉴브리핑 16:00 토크콘서트 화통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임미현의 아침뉴스 7:30 김형철의 뉴스쇼 12:00 CBS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제주종합뉴스 18:15 시사매거진 제주종합뉴스 21:35 라디오강연 22:05 서연미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정점&토론 20:30 여름이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KBS 스페셜 22:55 오늘밤 김제동 23:55 슈퍼 23: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원순장이 아내 20:30 글로벌24 20:55 살림의 남자들 22:00 닥터 프리즈너 22:35 닥터 프리즈너 23:10 불후의 명곡 전설으로 노래하다(재)	18:50 용왕님 보우하사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제주MBC 시사간전 22:00 더 뱅커 22:35 더 뱅커 23:10 라디오스타	18: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19:00 반깁다 천구아 19:30 좌충우돌 아남매의 제주여행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절대 그이 22:40 절대 그이 23: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부 23:50 백중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KCTV VOD 세네한수 9:30 웰컴 투 골목상권 10:00 글로벌 아카데미 12:10 알코리 KCTV 다큐 13:00 KCTV VOD 세네한수 14:30 KCTV 시청자세상 17:40 신기한 동화나라 18:30 웰컴 투 골목상권 19:00 KCTV 뉴스 7 21:30 KCTV 종합뉴스 22:00 KCTV 다큐스페셜

오늘의 운세 15일

김홍상 지단(해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이 보약. 48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이 전보다 더 밝아질 수 있다. 60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 72년 승진, 취업 또는 상을 받을 일이 따른다. 창업, 개업은 심사숙고. 84년 동료와 화목을 하거나 협조할 일이 생긴다.

42년 문서 매대 이동에 길. 여행(출장)할 일이 생긴다. 54년 뜻대로 일의 성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66년 대립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내가 먼저 양보와 배려. 78년 자금거래를 삼가라. 보증문제 발생. 이성관계에 불협화음. 90년 모임이 있거나 활동이 왕성한 날. 돈지출이 생긴다.

37년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추진해가면 일이 풀린다. 49년 시비 구설이 오니 언쟁을 피하고 질투하지 마라. 61년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오늘도 끊임없이 분주하다. 73년 뜻밖에 희소식이 기다린다. 약속 시간 엄수하여 제시간에 도착이 중요. 85년 감정대립 또는 오해 소지가 많으니 언쟁을 조심하는게 좋다.

43년 동료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5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적어서 속상하다. 67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거나 정리하는 하루. 내부 일에 치중하라. 79년 친구와 불화가 오니 언쟁을 조심하라. 91년 다투면 오래간다. 즉시 화해하거나 오해 없도록 자리를 피하라.

38년 가족 모임이 구성되거나 친구모임이 있다. 차는 두고 가라. 50년 중장 모임이 있다. 귀가는 늦지 않도록. 귀가 늦으면 불화가 된다. 62년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많아지고 배려한다. 74년 외출 또는 여행할 일이 있다. 차량운전은 조심. 86년 내 생일을 적극 추진하라. 운은 내가 취하는 것이니 활동하라.

44년 물건을 분실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56년 적절한 규모있는 자금지출을 하라. 과소비에 스트레스 우려. 68년 도전의식과 의욕이 강한 만큼 치밀한 계획과 성실한 실천력이 필요. 80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92년 노력 끝에 결실이 맺으니 일이 진전이 있고 희망도 있다.

39년 하던 일이 안 풀리면 잠시 휴식 필요. 모임도 원만. 51년 자식에 의한 애경사가 있다. 상의가 필요. 63년 이사 또는 변화가 있다. 문서상 이득이 있고 재물이 생긴다. 75년 바쁜 소식을 접하거나 초대 받을 일이 생긴다. 87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이와 만남은 늘 포근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45년 아이를 위한 기도나 상담도 때론 필요하다. 57년 내 마음과 육신이 허전함을 고독으로 느낀다. 여행을 떠나라. 69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 때. 미흡한 점선 주선 적극 임하라. 81년 전문성에 도전하라. 직장인은 기쁨이 있다. 93년 진정을 생활화 하라. 맞이한 다음에 후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40년 집안 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물건구입시 과소비 주의. 52년 자기사업을 한다면 마무리를 잘 해야한다. 64년 언쟁이나 다툼이 생긴 소지가 많으니 필요 이상의 언쟁을 하지마라. 76년 전문적 종사 또는 유행을 창조하는 분야는 좋은 소식 있다. 88년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다.

46년 몸이 이상이 오거나 구설수 조심해야 한다. 58년 휴식을 취하고자 하여도 내일이 신적해 있다. 집안일에 치중하라. 70년 여행 또는 외출을 하거나 손님이 방문하여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미팅이 주선되거나 친구 축하하러 가게 된다. 패션에 초점을 맞춰라. 94년 재물의 지출이 생기니 곧 회복된다.

41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 유리. 53년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음주는 자제. 65년 상대자와 언쟁이나 다툼은 피할 것. 내 자랑만큼 자금지출과 일치. 77년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성소식이 오면 만나라. 89년 유행 낭비하는데 지출이 생긴다.

47년 급한편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 59년 직장이나 부하직원에게 의한 고민, 자식의 문제로 걱정을 한다. 71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질투할 일이 생긴다. 친구간에 경쟁은 금물. 83년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더 노력하여 전문가로 발돋움할 것. 95년 결실을 거뭇는다. 내집에 할 일이 많아진다.